

메르스 위기경보 '관심' → '주의' 격상...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택시기사 밀접접촉자에 포함돼 총 21명

보건당국 "환자 입국 후 동선 계속 파악" ... 일상접촉자는 '수동감시'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 만에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메르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쿠웨이트를 방문한 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61세 남성과 밀접하게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자택에 격리된 사람은 지난밤 사이에 1명 늘어나 현재까지 21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9일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본부 내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였다고 밝혔다.

위기경보는 관심(해외 메르스 발생), 주의(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경계(메르스 국내 제한적 전파), 심각(메르스 지역 사회 또는 전국적 확산) 순으로 격상된다.

확진자의 입국 이후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파악된 밀접접촉

자는 항공기 승무원 3명, 탑승객(확진자 좌석 앞뒤 3열) 10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가족 1명, 검역관 1명, 출입국심사관 1명, 리무진택시 기사 1명 등 총 21명이다. 전날 발표된 밀접접촉자에 택시기사가 새로 포함됐다.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할 때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의 음압격리구급차(운전기사 개인보호구 착용)를 이용했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진료해 보건소와 서울대병원 관련자들은 밀접접촉자에서 제외됐다.

밀접접촉자 21명은 현재 자택격리 중으로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집중 관리를 받는다.

확진 환자와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등을 비롯한 일상접촉자 440명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해 수동감시 중이다. 수동감시는 잠복기인 14일동안 관찰 보건소가 5회 유선·문자로 연락하고, 의심 증상 발현 시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당국이 확진자의 공항 이동 경로 등을 CCTV로 분석함에 따라 접촉자 규모는 추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 8월 16일에 쿠웨이트로 출장을 떠났다가 지난 7일 귀국한 A(61·서울거주)씨는 8일 오후 4시께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

A씨는 설사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공항에서 바로 삼성서울병원으로 갔고, 발열, 가래, 폐렴 증상 등을 보여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됐다. 이후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았다.

/박은진 기자 pej269400@



3년만에 다시 메르스 비상!

3년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다시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린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메르스 감염 주의 안내문에 스크린에 떠 있다.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10일 구성된다

광주시-시민모임, 원칙 합의...중립인사 7·양측 추천 4명 등 11명 전방 '여론조사·숙의조사' 공론화 방식 따라 찬반이해 관계 정면충돌 여전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10일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광주시 교통건설국이 제6차 모임을 한 데 이어 주말에도 잇따라 접촉을 하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 대체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오는 10일 오전 8시 시청에서 7차 모임을 하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관한 최종 합의를 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각 대학과 전문가에 추천을 의뢰해 받은 후보를 중심으로 중립적인 인사 7명에 광주시 교통건설국과 시민모임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해 모두 1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

다. 애초 시의회 2명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의결기관이면서 민선 6기에 지하철 건설방식을 승인한 의회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배제됐다.

또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는 굳이 이해 당사자인 광주시와 시민모임이 추천하는 후보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어 양측의 합의 여부에 따라 7명으로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양측은 그동안의 만남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에는 큰 이견 없었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그동안 5개 대학과 변호사협회, 서울의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공론화위원회 후보 추천을

의뢰해 모두 18명을 통보받았다.

이들 후보 가운데 광주시와 시민모임이 제척해야 할 대상을 배제하고 나머지 후보 가운데 중립적 인사 7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광주시와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이 공론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나 불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광주시는 시민모임이 주장하는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위한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자 이를 되살리는 노력을 보이며 시민모임의 의심을 어느 정도 불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데 이어 공론화 방식 등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10일 오전 8시 예정된 7

번째 모임에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시민모임 측은 여전히 '시민참여형 숙의조사'가 아니면 공론화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라서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최근 시민모임이 새 대표로 언론인 출신 시민사회 활동가인 신선호 씨를 선임하고 변형섭 전임 대표는 숙의조사 방식을 관철하기 위한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져 협상 결과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그러나 공론화 방식이 어떤 내용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찬반이 첨예한 이해 당사자간 정면 충돌 가능성이 농후해 그 후유증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6차례의 만남에서 서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 어느 정도의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10일 오전 모임에서 최종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외신 "北 70주년 열병식에 ICBM 동원 안돼...김정은 참석" 김정은 국무위원장, 中 리잔수와 나란히 관람... "연설은 안해"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0주년(9·9절)을 기념해 개최한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등장하지 않았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교도 통신도 이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ICBM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도 통신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주석단에서 열병식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서 연설은 하지 않았다고 교도 통신은 덧붙였다.

중국 권력서열 3위로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북한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도 김 위원장과 나란히 주석단에서 열병식을 지켜봤다고 APTN은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8일 이른바 '건군' 70주년을 맞아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열병식에 병력 1만2천여명과 '화성-14'형과 '화성-15'형 등 기존에 공개했던 두 종류의 ICBM급 미사일을 등장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



9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 70주년(9·9절) 기념 열병식에서 탱크가 이동하고 있다.

"함께 일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전액국비) 장애인직업훈련생모집!!

훈련분야

- 정보분야(정보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등)
- 디자인분야(그래픽디자인, 광고출판디자인, 웹디자인 등)
- ※ 자격증 대비반 운영

입학안내

- 입학자격 : 구직등록 장애인 / - 모집시기 : 연중 수시

전형방법

- 입학 선발평가를 통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 취업성공패키지

단계	내용	수당
1	상담, 직업능력평가, 구인역량강화프로그램	150,000원~250,000원
2	직업훈련	월 최대 284,000원
3	집중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최대 150만원 (취업 후 근속개월 수에 따라 차등지급)

입학문의 Tel. 062)371-7711(광주파견교육장)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9-4(코스모스 빌딩 3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광주파견교육장**

서구 치평동 중흥스카이31 상가 임대

1층 101호 코너자리

전용면적 357.72㎡(108.2평)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1천 100만원

108호 전용면적 84.04㎡(25.4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250만원

☎ 062)676-0004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중흥메가티움

상가 125호

상가 201호

전용면적 415.58㎡(125.72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300만원)

☎ 010-4057-7999